



새로운 시작 Hello 2021

부산체육이 다시
날기 위한 한 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회원단체 신년인사

구·군체육회, 종목단체
신년인사



Vision을 톡!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
중점 추진사업 안내



뉴스 톡톡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
신설종목

- 서핑, 스포츠클라이밍,
스케이트보딩

새로운 시작 Hello 2021



2021

부산체육이 다시 날기 위한 한 해로

부산광역시체육회 회장 장인화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부산체육 가족 및 시민 여러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부산체육인 여러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을 잘 풀어낼 수있는 한 해,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체육계는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국민들과 사회 각계는 물론 체육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부산시민과 체육가족 여러분이 시름을 덜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2021년 새해에는 더 나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되기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우선 체육생태계 보존과 시민체육 보급을 위해 체육경영을 도입하여 부산광역시체육회의 자생력 확보 및 위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생활체육-학교체육-전문체육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부산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가운데서 우수한 체육선수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맞춤형 스포츠 복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착실히 듣고 원활하게 소통하며 국제교류와 해양 스포츠 도시 구현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 당당히 시민 여러분과 체육가족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팬데믹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믿고 현재 상황에 맞춰 나아갈 준비를 하는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자세로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튼튼한 몸과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도시, 부산광역시의 시민이고 체육인입니다. 지금은 이 살얼음판 같은 코로나19로부터 적잖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모두가 갖고 있는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잘 극복해 나가야합니다. 모두가 노력한다면 부산체육은 잠시 움크렸던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2021년 깨끗하고 우직한 기운을 품은 신축년(辛丑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민 여러분 및 체육가족 모두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辛丑年

회원단체 신년인사



2021 GREETINGS

2021년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롭게 탈바꿈 하는
부산체육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구·군 체육회

중구체육회	서구체육회	동구체육회	영도구체육회
부산진구체육회	동래구체육회	남구체육회	북구체육회
해운대구체육회	사하구체육회	금정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
연제구체육회	수영구체육회	사상구체육회	기장군체육회

종목단체

검도회	게이트볼협회	골프협회	국학기공협회	궁도협회
그라운드골프협회	근대5종연맹	낚시협회	농구협회	당구연맹
댄스스포츠연맹	럭비협회	레슬링협회	롤러스포츠연맹	바둑협회
배구협회	배드민턴협회	보디빌딩협회	복싱협회	볼링협회
빙상경기연맹	사격연맹	산악연맹	요트협회	세팍타크로협회
수상스카웨이크스포츠협회	수영연맹	수중·핀수영협회	스쿼시연맹	스키협회
승마협회	씨름협회	아이스하키협회	야구소프트볼협회	에어로빅힙합협회
양궁협회	역도연맹	우슈협회	유도회	육상연맹
자전거연맹	소프트테니스협회	조정협회	족구협회	줄넘기협회
철인3종협회	체조협회	축구협회	카누연맹	컬링협회
탁구협회	태권도협회	택견회	테니스협회	파크골프협회
펜싱협회	하키협회	핸드볼협회	국무도연맹	바이애슬론연맹
요가회	카바디협회	킥복싱협회	패러글라이딩협회	합기도협회
서핑협회	걷기협회	주짓수협회	치어리딩협회	피구협회
플라잉디스크연맹	이스포츠협회	공수도연맹	에어로킥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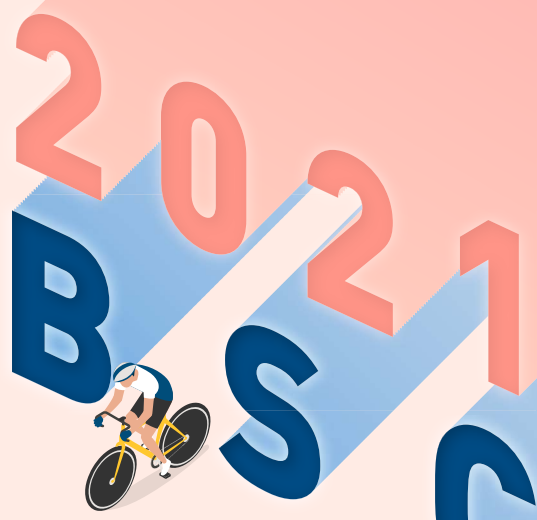


Vision을 톡!



부산광역시체육회 비전과 목표 & 중점 추진사업 안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행사들이 빛을 보지 못한 한 해였다. 금방 종식될 것 같았던 팬데믹 상황은 길게 이어졌다. 그로 인해 전국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개최되지 못해 체육인들이 흘린 무수한 땀과 노력은 결실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만큼 다들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2021년을 시작해야 한다. 2021년을 맞아 다시 힘차게 도약할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Focus 01. 자생력 확보와 체육회 위상 정립

01 체육회 법인 설립

2020년 11월 19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시체육회의 법인 설립이 추진 중이다. 법인 설립을 통해 지방체육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올해 6월 9일 법 시행일까지 법인을 설립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02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체육회 유·무형 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으로 기업을 연계한 각종 대회 개최와 유치를 통해 후원금을 확보하고 스폰서십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것이다. 또 오는 6월 부산광역시체육회 법인 설립을 통해 법적 권리 취득 이후 마케팅 활동을 활성화하며 마케팅 활동 영역 다각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SPORTS MARKETING

03 스포츠 윤리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스포츠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비위행위 적발 시 강력한 징계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를 추방하고 스포츠 4대악(1. (성)폭력, 2. 승부조작 3. 입시비리 4. 조직사유화) 없는 청렴한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으로 투명한 스포츠 생태계 확립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강화시키며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및 우선징계 처리를 조속히 실행해 2차 피해에 대비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시키는 등의 노력을 할 것이다.

04 회원단체 발전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 사업

구·군체육회와 회원종목단체 운영에 대한 청렴도 제고와 행정력 향상을 위해 총 82개 회원단체에 대해 보조금 예산집행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과 운영평가를 실시할 것이다. 회원단체별 평가 기준표 등의 자료를 마련하고 취합해 사무국 직접 방문 점검 및 자료평가에 따른 대면 점검을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회원단체 직무연수 또한 실시해 2021년 주요사업을 소개하고 연간사업 추진방향 설명으로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Focus 02. 전문체육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01 선진형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고등부와 대학교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학교운동부를 활성화하고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교를 선정해 지원할 것이다. 또 학교체육의 기초기반 강화를 위해 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운동부에 훈련용품 지원하는 등 학교운동부 육성 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외에도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지원해 전국체육대회 출전학교(팀)에 해당 종목의 지도자를 사외 파견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 및 전국체육대회 성적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02 체계적인 실업팀 운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

올바른 스포츠 가치와 건강에 대한 인식 함양을 위해 상반기에 부산광역시체육회 실업팀 선수단 연수회를 개최하고 인권교육과 법정외 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또 지도자와 선수별 평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매년 선수단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실업팀 선수단 고충상담창구를 연중 운영해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한 주기적인 상담을 실시,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03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으로 전국체육대회 전력 강화

부산 관내의 우수선수 연계육성을 통한 모범적인 실업팀을 육성, 운영하고 팀별 선수단 정예화 및 전문 트레이너와 연계한 훈련지원으로 선수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재능나눔 추진을 통해 선수단 이미지를 제고하며 장애인체육회와의 스포츠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04 종합체육대회 참가 스포츠 경쟁력 강화

전국동계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의 전국종합체육대회 참가를 통해 부산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선수 발굴하고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할 것이다.



Vision을 푼!



Focus 03. 스포츠를 통한 시민과 소통

01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부산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 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탁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대회 개최와 참가 지원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03 시민 맞춤형 스포츠 복지 서비스 운영

공공체육시설을 수탁·운영해 부산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1인 1스포츠 생활화의 정착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탁 운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현재는 국민체육센터 4개소(부산, 북구, 영도구, 강서구), 부산종합실내테니스장, 부산실내빙상장 총 6개의 시설을 수탁·운영 중에 있다. 이외에도 부산체육진흥 세미나를 개최해 부산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체육 이슈 논의와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02 '부산체육' 홍보 역량 강화

부산체육, 시사, 건강 상식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제공을 위한 '부산체육 정기간행물'과 트렌드에 맞춘 온라인 '부산체육 톡톡'을 확대 제작해 체육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SNS를 통한 부산광역시체육회의 멀티미디어적 홍보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고자 한다.

04 지역체육단체 체계 강화

16개 구·군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구·군체육회에 대한 설문과 개별면담을 실시해 인권실태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갈 것이다. 또 지역주민 생활체육활동 지도와 양질의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고 지도자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Focus 04. 국제교류 스포츠 도시 구현

01 국제스포츠 교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와 스포츠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회원종목단체 국제친선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말레이시아국립체육회를 교두보로 한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지속 가능한 교류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02 스포츠 민간외교를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부산-후쿠오카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를 통해 자매도시인 후쿠오카시와 도시 간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스포츠 발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교차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 대회를 통해 글로벌 시대의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고 민간스포츠 외교를 통해 문화와 양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앞으로 국제적인 스포츠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앞으로 스포츠 국제화에 발맞춰 나아가고자 한다.



뉴스 톡톡



살얼음판 같은 코로나19로 인해 체육행사가 주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인의 축제이자 체육인들의 뜨거운 열정, 땀, 노력을 증명하는 올림픽대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에는 새롭게 채택된 종목들이 있다. 새롭게 채택된 종목 중에서도 서핑, 스포츠킴라이밍, 스케이팅보드에 대해 알아보자.

**파도 가르며
묘기 부리는 열정적인
스포츠, 서핑**



서핑은 높은 파도가 밀리는 해안에서 서프 보드를 타고 몸의 균형을 잡아 가면서 밀려오는 파도를 타는 스포츠이다. 바다에서 열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파도의 상태, 풍향과 풍속, 조수간만의 차가 모두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림픽대회에 채택된 배경은 이렇다. 서핑은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대회와 1920년 앤트워프올림픽대회에서 미국 수영 대표 선수인 듀크 카하나모쿠에 의해 알려졌다.



근대 서핑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하나모쿠는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대회 시상대에 올라 “서핑이 올림픽 경기에 포함되었으면 한다”라는 수상소감을 말했는데 향후 서핑이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지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대회에 젊고 활기찬 문화를 불어넣고자 서핑을 제안했고 2016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했다.

📌 경기 방법을 알아보자!

- **대회 진행** : 예선 라운드와 메인 라운드 순서로 진행한다. 최종적으로 동메달 결정전과 금메달 결정전으로 이어지며 예선에서는 4~5명의 선수가 참여하고 메인 라운드에서는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된다.
- **경기 시간** : 경기 시간은 30분이며 테크니컬 디렉터가 경기 당일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기 시간 내에 한 선수가 최대 25번의 파도를 탈 수 있으며 가장 높은 2개의 점수가 채택돼 예선전 결과에 반영된다. 이번 제32회 도쿄올림픽대회에서는 남자 20명과 여자 20명의 서퍼들이 경쟁하게 되며 한 나라에서 성별 당 두 명의 선수까지 참가가 가능하다

뉴스 톡톡



손과 발만으로
등반하는 스포츠,
스포츠클라이밍



스포츠클라이밍은 등반 목표지점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낙상사고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진행해야 하는 스포츠이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세부 종목 3가지 모두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세부 종목으로는 스피드, 볼더링, 리드가 있다. 스피드 종목은 두 선수 중에 15m 벽을 더 빠르게 오르는 선수가 승리하는 종목이다. 두 명의 선수가 똑같이 세팅된 두 개의 벽을 각각 타게 된다. 볼더링은 4~5m 높이의 경기 벽을 여러 코스로 등반하면서 더 많은 코스를 완등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종목이다. 코스 난이도는 천차만별이며 미리 연습하는 것은 금지가 돼 있다. 탁월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모두 요구되는 종목이다. 리드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15m 높이를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지 겨루는 종목이다. 제한시간 6분 동안 로프를 타고 설치된 퀵드로에 끼워가면서 올라가는데 한 번 떨어지면 기회는 없다. 스포츠클라이밍은 3가지 종목을 합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한 가지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 하더라도 메달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다. 도쿄올림픽대회에서 처음 선보이는 종목인 만큼 누가 이번 올림픽대회의 메달 주인이 될지 궁금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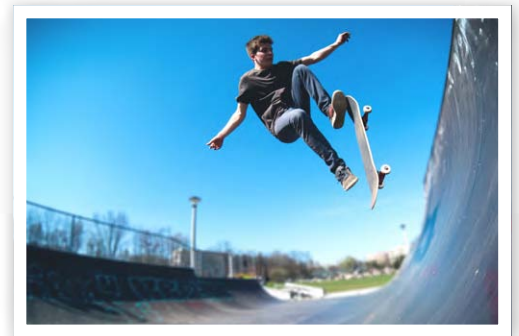
기술편을 알아보자!

- **삼지점** : 두 발로 각각 홀드를 딛고 양손으로 홀드를 잡아 균형을 유지하는 동작
- **힐 훅 스텝(Heel hook step)** : 발뒤꿈치로 홀드를 짚듯이 딛는 동작이다. 발을 높이 들고 올라 가야할 때 사용하는 동작이며 힘이 덜 들기 때문에 벽에서 몸을 편안하게 유지할 경우에 사용한다.
- **하이스텝(High step)** : 발로 딛고 서는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보다 높여 이동하는 기술
- **아웃사이드 스텝(Outside step)** : 발의 바깥쪽이 벽과 붙는 모양을 하는 동작
- **다이노(Dyno)** : 먼 거리에 있는 홀드를 잡을 때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듯 뛰어 이동하는 가장 역동적이고 고난도 기술이다.

계단과 난간 타며
묘기 부리는
스케이트보딩



스케이트보딩은 스케이트 보드를 타고 하강, 회전, 묘기를 하는 스포츠이다. 도쿄올림픽대회에서는 스트리트와 파크 두 가지 종목이 개설되며 각각 남, 여 2개씩 금메달이 걸려 있다. 스트리트는 계단, 난간, 벤치, 벽과 같은 코스가 있는 거리를 닮은 경기장에서 승부를 겨루는 종목이다. 스케이트 보더들은 한 명씩 경기를 하고 각 섹션을 활용해 다양한 트릭(묘기, Trick)을 선보인다. 판정은 트릭의 난이도와 동작의 높이, 속도, 독창성, 완성도와 구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종합점수를 내게 된다. 파크는 U자 모양의 코스를 타면서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코스의 경사면은 파인 부분의 밑바닥에서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꼭대기 부분에 가서는 수직이나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가 된다. 이 경사면들을 빠르게 타고 올라서 만들어내는 엄청난 높이와 그 높이를 이용해 수행하는 놀라운 공중 트릭들이 파크 종목에서 볼 수 있는 매력이다. 두 종목 모두 심사위원의 채점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기술편을 알아보자!

- **알리(Ollie)** : 뒷발로 보드 뒷부분을 짚어내듯 점프한 후 착지하는 기술
- **플립(Flip)** : 알리 기술로 점프한 후 공중에서 보드를 옆으로 한바퀴 돌려서 착지하는 기술
- **그라인드(Grind)** : 보드를 탄 채로 계단 손잡이처럼 높고 면적이 좁은 기물을 타고 내려가는 기술
- **킥턴(Kick turn)** : 보드 뒷부분을 밟으면서 회전하는 기술 180도 회전하면서 방향을 반대로 바꾸는 기술

※ 참고 : 대한체육회

이외에도 3x3 농구, 야구, BMX 프리스타일(자전거), 가라테 등 기존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있었거나 혹은 새롭게 채택된 종목들도 있다. 이번 2021년에는 도쿄올림픽대회가 무사히 개최돼 그동안 노력해온 체육인들이 좋은 결실을 얻길 바란다.

부산광역시체육회 골드멤버 BUSAN SPORTS COUNCIL GOLD MEMBER

